

<1번>

제시문 (가-2)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에 대해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여러 요소 및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규칙적인 재평가를 통한 점검을 들 수 있다. 현실성을 위해 환경 및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그 요소 중 하나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려는 태도와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정한 한계 속에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나친 낙관성은 모종의 신념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가 그 낙관성에 대해 고통하여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다. 즉, 과도한 신념 및 근거 없는 안전감은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주의적 낙관성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낙관성이 필수적이라고 기술한다. 정리하자면, 제시문 (가-2)는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그에 몇몇 요소 및 기준이 있다고 기술한다.

제시문 (나)와 (다)는 낙관성에 대해 다소 현실적임의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선 제시문 (나)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보이는 모습이 제시된다. (나)에서의 돈키호테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완벽히 오판하며, 존재하지 않는 거인들이 대해 있다고 믿는다. 사실 돈키호테가 거인이라고 믿는 사물은 풍차들이다. (나)에서 산초는 돈키호테가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풍차라고 말을 해 주지만, 돈키호테는 끝내 듣지 않는다. 이는 (가-2)에서 제시된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요소인 피드백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거인이라고 생각한 물체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도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점은, (가-2)에서의 자신이 속해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여 재평가 하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요소를 전혀 하지 않은 모습이다. 풍차에 대해서 무모하게 도전을 하고, 날개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 점은 (가-2)에서 제시된 일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과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더불어, 돌시네아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은 (가-2)에서 제시된 모종의 신념이자 잘못된 믿음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비현실적 낙관성을 지니고 행동한 돈키호테는 결국에 비현실적 낙관성 때문에 처참하게 쓰러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제시한다. (다)에 의하면, 한 여자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며 재평가한다. 본인의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재평가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 그녀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모종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여 방안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이는 모두 (가-2)에 기술된 현실주의적 낙관성의 요소 및 기준이다. 또한, 그녀는 부모 및 동생들과 의논하는 등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부모 동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근거없는 안전감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점검하고 재평가하고, 본인의 현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극복하려는 태도, 일정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태도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에 기반한 사고로, 결국에 그녀에게 김도령과 혼인하게 되는 행복증진의 결과를 낳게 된다.

<2번>

제시문 (라)에서는 낙관성 및 현실성을 기준으로 네 집단을 나눠 시험성적을 분석한 결과가 기술된다. (라)의 결과를 보면 현실성 여부에 따라 시험점수는 정비례 한다. 또한, 낙관성 여부에 따라 시험점수는 반비례 및 규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현실성이 있는 학생들은 낙관성이 강한 경우 평균적으로 5, 낙관성이 약한 경우엔 4를 보이며, 현실성이 약한 학생들은 낙관성이 강한 경우 평균적으로 2, 낙관성이 약한 경우엔 3.5를 평균적으로 시험점으로 맞았다. 현실성이 강한 학생들의 경우엔 낙관성의 여부에 상관 없이 각각 점수가 5와 4를 맞아, 현실성이 약한 집단이 2와 3.5를 맞은 것에 비해 점수가 높다. 이는 현실성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들의 점수는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낙관성이 강한 학생들의 경우엔 현실성 정도에 상관없이 각각 5와 2인 점수를 받았고, 낙관성이 약한 경우에는 각각 4와 3.5인 점수를 맞아, 다소 불규칙적이고 일정 부분에서는 반비례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시문 (가-1)의 논지는 행복한 사람들은 긍정적 환상이라는 현상을 통해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여 긍정적 편향을 갖고 및 장밋빛 안경을 통한 긍정적 미래를 생각한다. 이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한다. 또한, 지나친 자신감은 본인의 정신 건강에 유익하며, 긍정적 환상을 자주 갖는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기술한다.

(라)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가-1)을 본다면, (가-1)의 논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 가능하다. (라)에 의하면 시험점수에는 현실성이 매우 강한 요소로 작용하여, 현실적일수록 시험 점수가 높으며, 이는 매우 강한 비례 관계를 보인다. 또한, 낙관성은 그 인과관계가 약하고 불규칙하여 (가-1)에서 제시된 조사는 (라)의 실험결과를 통해 보면 타당하지 못한 조사 결과이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라)에 의하면, 현실성이 없고 동시에 낙관성이 있는 집단은 시험점수가 2이다. 한편, 현실성이 낮고 동시에 낙관성 또한 낮은 집단은 시험점수가 3.5이다. (가-1)의 상황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아 긍정적 편향 및 긍정적 환상을 갖고 있는 집단들을 상대로 시험 성적을 조사한 것이기에, 이는 (라)에서의 비현실적인 성격 및 강한 낙관성을 띄는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은 (라)에 의하면 시험점수가 제일 낮은 집단이다. 오히려, 비현실적이면서 낙관성이 약한 학생들이 점수는 비현실적 및 강한 낙관성인 집단보다 높다. 그러므로, (가-1)의 조사 결과는 엉터리라고 볼 수 있고, 긍정적 환상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우수함의 기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라)는 수치화 된 성적을, (가-1)은 추상적인 행복 및 정신 건강을 제시한다.

한편, 일부분에 한정하여 (가-1)과 (라)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도 제시된다. (가-1)에 제시된 현실 인식이 없다면 바보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라)의 실험결과를 통해 본다면, 강한 비례관계인 현실성을 통해 본다면, 낙관성의 정도에 상관 없이, 현실성이 낮을수록 시험 점수는 낮다. 성적이 낮을수록 덜 우수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바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1)의 논지를 평가하자면, 다소 비판적이고 타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분에 한정하여 유사한 요소들도 있으나, 실험 결과 자체가 서로 대립되고, (가-1)에서의 주요 논지 또한 (라)와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수함에 있어서도 (라)는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가)는 정신 건강을 기준으로 잡는 점도 다르다. 그러므로, (라)의 입장에서는 (가-1)을 충분히 비판 가능하다.